

## 한국 성인 남녀가 행복에 이르는 길: 직업 성취, 자녀 성공, 정서적 지원과 자기효능감의 영향\*

박 영 신<sup>†</sup>

인하대학교 교육학과

김 의 철

인하대학교 경영학부

이 연구에서는 성별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사회계층, 가정경제수준, 직급, 직업유형, 직업 성취, 결혼상태, 맞벌이 여부, 자녀 수, 자녀의 성공정도별로 성인 행복의 차이를 분석하였는데, 이를 남자와 여자 집단 각각 분석하여 비교하였다. 둘째, 성인 남녀의 행복을 설명하는 변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특히 직업에서의 성취와 자녀의 성공이 남자 직장인, 여자 직장인, 전업주부 집단의 행복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의 정도를 비교하였다. 최종분석대상은 사회계층을 고려한 세 지역에서 표집된 성인 313명(남 133명, 여 180명)이었다. 자기효능감 척도는 Bandura (1995)의 도구를 번역하여 사용하였으며, 그 외에 정서적 지원 척도와 행복 척도 및 배경정보 질문지는 연구자가 제작하였다(Cronbach  $\alpha = .84 \sim .90$ ).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하위집단별 행복의 차이를 t-검증 및 변량분석을 한 결과, 남녀 모두, 사회계층이 높은 집단이, 가정경제수준이 높은 집단이, 고위관리전문직 집단이, 직업에서 성취도가 높은 집단이, 자녀가 성공한 집단이 더욱 행복하였다. 그러나 결혼상태별 분석에서는 남녀 차이가 있었다. 남자는 미혼집단 결혼집단 사별집단의 행복 정도에 차이가 없었으나, 여자는 사별집단이 가장 행복하였다. 둘째, 행복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예언변인으로 월평균수입, 연령, 학력, 정서적 지원, 자기효능감, 직업 성취, 자녀 성공 변인을 투입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한 결과, 남자 직장인 집단의 행복은 정서적 지원이 가장 중요한 예언변인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직업 성취가 의미있는 변인으로 추가되었다. 전업주부 집단의 행복은 자녀의 성공과 그 다음으로 가정의 월평균 수입이 의미있는 예언변인이었다. 이 두 집단과는 달리, 여자 직장인 집단의 경우에 자기효능감만이 행복을 예언하는 의미있는 변인으로 포함되었다.

주요어 : 행복, 성취, 직업 성취, 자녀 성공, 정서적 지원, 자기효능감, 월평균 수입.

\* 이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2006년 1월 14일) 369회 '벼락부자, 그 후: 부자라서 행복하십니까?'에서 발표한 데이터를 재분석한 것이다.

† 교신저자 : 박영신, 인하대학교 교육학과, (402-751)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253  
E-mail : yspark@inha.ac.kr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 자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돈을 벌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또는 경제적인 안정과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 위해 전력투구한다. 그러나 경제적인 가치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의 혼을 넣어 작품을 완성해 나가고자 최선을 다하는 예술가의 삶도 있다. 어떤 경우는 결국 내러울 산인데도 불구하고 정상에 오르기 위해 목숨까지 바치며 세계 최고의 봉우리에 도전하는 등반가의 삶도 있다.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삶의 형태가 있다. 모든 사람들의 얼굴 모습이 다 달라 십인십색이라는 말이 있듯이, 살아가는 모습은 얼굴 모습만큼이나 다르다.

그렇게 다른 방식과 다른 과정을 거치는 삶의 모습들임에도 불구하고 추구하는 목표에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행복한 삶의 추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돈을 벌기 위해 발버둥을 치는 것이나, 훌륭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 배고픔도 잊는 것이나, 세계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를 정복하기 위해 목숨까지 바치는 것이,形形色색 다른 모습처럼 보여도, 그 밑바탕에 있는 기본적인 정신은 일치한다. 즉 다른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고 해도,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며, 그것에 나름대로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 추구하는 일이 만족스럽게 이루어질 때 행복해진다.

행복이 사람들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라고 본다면, 인간의 행복에 대한 심리학적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사람들의 행복심리를 잘 정리할 수 있다면, 심리학이 이론적 체계로서의 학문 자체로서만이 아니라 인간의 행복한 삶에 대한 보다 실제적인 기여를 하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 행복에 대한 관심이 심리학 분야에서 증대되어 왔다. 1998년에 Seligman에 의해 긍정심리학이 창시되어, 하나의 학문적 흐름으로 만들어지기까지는 몰입의 연구자인 Csikszentmihalyi, 주관적 안녕감 연구의 선구자인 Diener, 성격적 강점과 덕성 연구자인 Peterson과 같은 많은 학자들이 기여하였다(권석만, 2008). 긍정심리학 분야에서는 행복을 측정하여 긍정적 정서와 행복경험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며,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을 규명하고, 행복한 삶의 원천을 이해하여 궁극적으로는 현실에의 응용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논의를 진행하여 왔다.

한국의 학계에서도 긍정심리학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사회문제심리학회는 2007년 연차학술대회 주제를 ‘긍정심리 그리고 긍정적인 삶(Positive & Life)’으로, 한국인간발달학회에서는 2008년 연차학술대회를 ‘긍정의 힘과 인간발달’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바 있다. 또한 한국심리학회의 연차학술대회에서도 행복이나 삶의 질 등 긍정심리학을 주제로 하는 심포지엄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2005년도 연차학술대회에서는 ‘한국사회 삶의 질’이, 2006년 연차학술대회에서는 ‘부정의 치유에서 긍정의 실현으로: 긍정심리학의 과제와 전망’ 및 ‘한국 중년 여성의 삶과 행복’이, 2008년도 연차학술대회에서는 ‘한국인의 행복과 불안’ 및 ‘진로와 행복’이 심포지엄 주제로 개최되었다.

이외에도 행복이나 삶의 질 또는 긍정심리를 다루는 경험과학적 연구들이 최근에 많이 이루어져 왔다. 그 중에서 행복이나 삶의 질 또는 긍정심리와 관련하여 성별 차이를 다룬 연구들이 있다. Lucas와 Gohm(2000)은 주관적 안녕감에서의 성차와 관련된 논문들을 개관하

었다. 주관적 안녕감과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진 초기에는, 성별에 관계없이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여자가 남자보다 불쾌한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경향이 있음이 지적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경향이 슬픔과 같이 내면화된 정서에 초점을 둔 것이고, 예컨대 화냄과 같은 외부화된 정서에는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Nolen-Hoeksema & Rusting, 1999). 긍정적인 정서인 주관적 안녕감에서의 성차에 대한 설명도 연구에 따라 불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Lucas와 Gohm(2000)은 주관적 안녕감에서 성차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간단히 긍정하기도 부정하기도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한 주관적 안녕감에서 성차에 대한 연구들이 서양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사회적인 맥락이나 문화의 영향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왜 한국인의 행복감이 낮은가에 대한 서은국(2005)의 논의 등은 한국인의 행복을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측면에서 분석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명신과 이훈구(1997)는 한국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주관적 삶의 질을 평가하게 하였을 때, 여자가 남자보다 낮게 평가한 결과를, 순수한 성의 효과라기보다는 여자가 남자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성차로 밝혀진 결과가 사회적 지위와 같은 다른 외생변인들과의 상호작용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이다.

이 연구에서의 궁극적인 관심은 행복에서의 성차와 관련된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관심은 한국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성별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

가를 규명하는데 있다. 박영신과 김의철(2009)의 연구에서 성별에 따른 행복의 차이를  $t$ -검증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p > .05$ ). 그러나 성별에 따라 행복에 차이가 없다고 해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간의 역동에서 반드시 차이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문제의식이 이 연구의 출발점이 되었다. 예를 들어 직장생활로 바쁜 성인 남자나, 자기의 개인적 성취보다 남편 뒷바라지와 자녀양육 등 가사활동에 주된 시간을 보는 전업주부, 직장생활을 하면서 집안일도 보살펴야 하는 직업을 가진 성인 여자 집단은, 직업에서의 성취나 자녀의 성공에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는 정도나 중요하게 인식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변인들이 개인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성별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데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직업에서의 성취와 자녀의 성공이 각각 행복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는지, 성별 집단에 따라 상대적인 영향력의 정도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더불어 여러 배경정보들에 따른 행복의 차이를 성별 집단별로 분석함으로써 어떠한 패턴의 차이가 있는지도 검토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연구를 통해 분석하고자 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배경정보 변인에 따른 행복의 차이를 각 성별집단별로 검토함으로써, 성별집단에 따른 패턴의 차이를 검토하고자 한다. 박영신과 김의철(2009)의 연구에서 배경정보 변인에 따른 행복의 차이를 검토한 바 있으나, 매우 제한적인 배경정보 변인들만 다루었는데, 이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배경정보 변인들을 추가하여 분석

하기로 한다. 즉 사회계층, 가정경제수준, 직업유형, 직업 성취, 결혼상태, 맞벌이 여부, 자녀 수, 자녀의 성공정도별로 행복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는데, 이를 남자와 여자 집단 각각 분석하여 비교하고자 한다. 둘째, 비록 성별에 따른 행복의 차이를 검증하였을 때 의미없는 것으로 밝혀졌지만(박영신, 김의철, 2009), 남녀의 행복을 설명하는 변인들의 영향력에서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직업에서의 성취와 자녀의 성공을 중심으로 하여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이 상호 역동하는 패턴에서 성별 차이가 어떠한지를 명료하게 밝혀 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남자 직장인 집단과 여자 직장인 집단 및 전업주부 집단으로 분류하여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력의 정도를 비교하기로 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행복에서의 성차와 관련된 의미있는 자료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집단 구분을 단순히 성별만이 아니라 직업유무가 외생변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동시적으로 고려하여, 남자 직장인 집단, 여자 직장인 집단 및 전업주부 집단 간의 비교를 통해 보다 정교한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개인의 직업에서 성취와 성공적인 양육을 통한 자녀의 성취는 한국 사회에서 직업을 가진 성인 여자들이 쫓는 두 마리의 토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직장 여성들이 가정과 직장생활에서 갈등을 겪는 이유 중의 하나가, 가정에서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여 자녀양육을 잘 하는 것과, 직장에서 전문적인 성취를 잘 하는 것을 동시에 병행하여 만족할만한 성취를 이루기에는, 사회적인 여건과 주변 환경이 효율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고, 개인의 시간과 에너지가 역부족인 데 있다. 직장생활을 하는 성인 남자

또는 여자, 그리고 전업주부로서 가정생활에만 전념하는 성인 여자에게 있어 자녀의 성공이라든가 또는 직업에서의 성취와 같은 변인들이 개인의 행복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는지, 그러한 영향력의 상대적인 정도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박영신과 김의철(2009)은 한국 성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로 월평균 수입, 연령, 학력, 정서적 지원, 자기효능감, 직업 성취, 자녀 성공의 7개 변인으로 구성된 모형을 제안하고, 이러한 모형을 경로분석으로 검증한 바 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정서적 지원은 월평균 수입보다 행복에 대한 효과가 4~5배 정도 되었고, Bandura(1997)의 이론에 토대한 자기효능감과 직업 성취는 월평균 수입보다 행복에 대한 효과가 각각 2배 정도 되었다. 자녀가 성공했다고 지각할수록 더욱 행복하였으며, 자녀 성공은 월평균 수입보다 행복에 대한 효과가 1.5배 정도 되었다. 학력은 행복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으나, 자기효능감과 직업 성취를 통해 간접효과가 약하게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박영신과 김의철(2009)이 검증한 연구모형에 투입된 7개 변인들 중에서 직업에서의 성취와 자녀의 성공이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갖는지를 특별히 남자 직장인과 여자 직장인 및 전업주부로 세분화된 집단을 중심으로 상대적 설명변량을 비교하고자 한다. 박영신과 김의철(2009)이 남녀 성인집단을 모두 합하여 7개 독립변인을 모두 투입한 모형을 경로분석을 통해 검증한 결과는, 직업 성취( $P=.258$ )가 자녀 성공( $P=.177$ )보다 행복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이 더 컸다. 월평균 수입을 제외하고 6개 독립변인을 투입한 경로모형에서도 마찬가지로 직업 성취

( $P=.279$ )가 자녀 성공( $P=.170$ )보다 행복에 대한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남녀 성인을 모두 통합하여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남녀 성인집단에 따라 그리고 직업유무에 따라 직업 성취나 자녀 성공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적인 크기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국 사회에서 성인 여자와 남자의 행복과 관련된 심리의 차이는 선행연구 결과들을 통해 유추된다. 자아개념의 요인구조에서 성차를 분석한 이종구, 이해경과 김명소(2003)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여자는 집단적 자아가, 남자는 개인의 정신적 자아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개인의 정신적 자아에 직업 성취 및 학업성취 등이 포함됨으로서, 남자가 여자보다 직업적 성취와 관련된 자아가 더욱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성별로 다른 자아개념의 요인구조는 행복에 대한 심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덕웅과 김금미(2004)가 성별에 따른 한국문화 인식에서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자와 여자가 67%의 문항들에서 일치된 견해를 보였으나,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성별에 따른 차별과 이중 기준이 중요한 특징을 이룬다고 인식하였다. 이는 한국 여성들이 아직은 사회생활 참여과정에서 성차별과 이중 기준으로 인한 어려움을 지각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결과이다.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직장 생활을 할 때 극복해야 할 어려움이 더 큰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성인 여자 중에서도 취업주부와 전업주부들의 행복관련 심리에서의 메커니즘이 다를 가능성이 여러 연구들을 통해 시사되었다. 차영란, 김기범과 전경숙(2007)이 중년 여성들의

사회적 역할과 삶의 만족을 분석하였을 때, 40대 직장 여성들은 직장인으로서의 역할 증가와 가정에서 자녀에 대한 돌봄과 가사노동으로 인한 역할 의무감으로 심리적 부담감을 갖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에 비해 가정생활 부담감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직장생활에도 익숙해진 50대 여성들은 자기계발을 통해 정체감이 안정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이 직장을 갖고 있을 때 전업주부와 달리 직장인으로서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직장과 관련된 기혼의 직장 여성들이 겪는 직장-가정 갈등에 대한 연구(강혜련, 최서연, 2001)에서는 직장-가정 갈등으로 인해 기혼 직장 여성들이 조직몰입과 삶의 만족이 낮아지고, 이직 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 여성은 전업주부나 직장 남성과는 다른 독특한 상황에서 직장-가정 갈등을 겪고, 그러한 어려움을 성공적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어야 가정도 평안하고 직장에서도 성취가 가능한 행복한 상태가 된다는 가정을 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직장-가정 갈등을 겪지 않는 전업주부의 경우는 자녀가 잘 성장하고 남편이 안정된 직장에서 충분한 생활비를 제공해주는 등 가정생활의 요인들에 의해 만족하고 행복한 삶에 접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전업주부가 자녀와 관련하여 심리적 안녕감에서 취업주부와 다른 특성을 갖고 있음은 취업 경험이 기혼여성들에게 어떠한 심리적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한 김혜원과 김명소(1998)의 결과에서도 밝혀지고 있다. 취업주부와 전업주부를 비교하였을 때, 전업주부들이 아들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였고, 아들을 낳는 것에 대한 주변의 압력을 더 많이 느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더 낮고 우울을 더 느끼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전업주부와 취업주부들의 행복의 요인들이 다를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 방 법

### 연구대상

서울시내의 다양한 사회계층이 모여 사는 세 지역을 선정하여 각 지역의 주민을 무선 표집하였다. 세 지역은 상류층 표집을 위한 강남구 D동의 고급 아파트 단지, 중류층 표집을 위한 은평구 B동의 전형적인 개인주택가, 하류층 표집을 위한 관악구 S동의 빈곤한 판자촌 지역으로 하였다.

세 지역의 가정 방문을 통해 질문지 실시를 개별적으로 하였다. 응답에 참여한 사람들은 총 318명으로서 강남구 도곡동 87명, 은평구 불광동 118명, 관악구 신림동 89명이었으며, 기타 지역이 23명, 거주지역 무응답이 1명이었다. 본인의 거주지역이 다른 동네인 사람들은 주소지가 이전되어 있다든가 여러 이유가 있었다. 표집대상 중에 남자가 135명, 여자가 183명으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다.

표집대상 총 318명 중에서 5명이 제외되어, 최종 분석대상은 313명이었다. 제외된 5명은 연령을 응답하지 않은 1명, 19세 2명, 91세 1명과 93세 1명이었다. 분석대상 총 313명 중에 남자 133명, 여자 180명이었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서 80대까지 모든 연령층이 고르게 분포하였고, 각 연령대에 남자와 여자가 모두 포함되었다. 최종 분석대상 313명 중에서 남자의 평균 연령은 47.49세였고, 여자의 평균 연령은 55.82세이었다. 남자 직장인 집단의 평균

연령은 48.28세, 여자 직장인 집단의 평균 연령은 52.60세, 전업주부의 평균 연령은 57.67세였다.

학력은 남자 경우 초등 졸(11.3%), 중 졸(4.5%), 고 졸(18.8%), 대 졸(48.1%), 대학원 졸(12.8%), 무응답(4.5%)로 구성되었다. 여자는 초등 졸(22.2%), 중 졸(8.9%), 고 졸(20.6%), 대 졸(33.3%), 대학원 졸(4.4%), 무응답(10.6%) 이었다.

가정경제수준에 대한 지각을 질문한 결과, 남자 경우 하(6.8%), 중하(21.1%), 중(54.1%), 중상(15.0%), 상(2.3%), 무응답(0.8%)로 응답하였다. 여자 경우 하(6.1%), 중하(18.9%), 중(56.7%), 중상(15.6%), 상(0.0%), 무응답(2.8%)로 응답함으로써, 상 중 하 집단의 구성 비율이 성별로 거의 유사하였다.

직업유무별로는 남자가 무직이 4명(3.1%)이고 127명(96.9%)이 직장인이었으며, 무응답이 2명(1.5%)이었다. 여자는 105명(58.3%)이 전업주부였고, 직장인이 68명(37.8%)이었으며, 무응답이 7명(3.9%)이었다. 남자 직장인 중에서 직업유형을 보면, 노동/생산(15.7%), 판매/서비스(16.5%), 사무/관리직(37.8%), 고위/전문직(29.9%)으로 구성되었다. 여자 직장인의 직업유형은 노동/생산(26.5%), 판매/서비스(30.9%), 사무/관리직(26.5%), 고위/전문직(16.2%)이었다. 그러므로 직업유형별 분포를 보면 남자와 여자 모두 노동/생산에서부터 고위/전문직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포함되어 있었다.

결혼상태를 질문한 결과, 남자는 미혼(34.6%), 결혼(50.4%), 사별(12.0%), 별거(0.8%), 이혼(2.3%)으로 나타났고, 여자는 미혼(18.9%), 결혼(43.3%), 사별(36.1%), 별거(0.6%), 무응답(1.1%)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므로 두 집단 모두 결혼한 경우가 반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하

고, 그 다음으로 미혼 또는 사별의 순서로 나타났다.

#### 측정도구

이 연구를 위한 질문지에는 3개의 척도가 포함되었다. 정서적 지원(문항 예: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해 준다)은 김의철과 박영신(1999)이 제작한 6개 문항 중에서 4개를 선별하였다. 답지는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값이 높을수록 더욱 정서적 지원을 많이 받는 것으로 해석된다. 남녀 집단 각각별로 Cronbach  $\alpha$ 를 구한 결과는 .90, .87로서 신뢰도가 매우 양호하였다. 자기효능감(문항 예: 되는 일이 아무 것도 없을 때, 당신은 좌절을 얼마나 잘 극복할 수 있습니까?)은 Bandura(1995)의 어려움극복효능감을 번역하여 그 중에서 5개로 측정하였다. 답지는 5점 척도로서, 값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남녀 집단의 Cronbach  $\alpha$ 는 .90, .84로서 양호하였다. 행복 질문지는 선행연구들(김의철, 박영신, 2004)에 토대하여 연구자가 제작하였다.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sup>1)</sup>, 답지는 5점 척도였다. 값이 높을수록 행복한 것으로 해석되

1) 행복 질문지 문항: 1. 우리 가족은 화목하다. 2. 마음이 통하는 친구들이 있다. 3. 인간관계가 원만하다. 4. 주위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다. 5. 어떤 일이트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6. 내가 하는 일에 보람을 느낀다. 7. 나의 교육적인 성취수준에 자부심을 갖는다. 8.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 9. 편안한 마음으로 여가생활을 즐긴다. 10. 나는 건강하다. 11. 나 자신을 꽤 괜찮은 사람으로 평가한다. 12. 내 삶이 누구보다 성공했다고 본다. 13. 나의 미래는 희망적이다. 14. 자유롭고 정의로운 사회에 살고 있다. 15. 나는 전반적으로 행복하다.

며, 행복 지수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되었다. 행복의 신뢰도는 정서적 지원이나 자기효능감보다는 비록 낮았으나 남녀 집단 각각 Cronbach  $\alpha$  = .89, .87로 비교적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배경정보 등 몇 가지 변인들이 질문지에 포함되었다. 거주지역은 응답자가 거주하는 구와 동을 직접 기록하게 하고, 성별 표시를 하도록 하였다. 또한 연령과 가정의 월평균 수입도 응답자들이 각자 기록하였다. 학력은 초등 졸업에서 대학원 졸업에 이르기까지 답지 중에 선택하도록 구성되었다. 직업유형은 노동/생산직, 판매/서비스직, 사무/관리직, 고위관리/전문직, 직급은 평사원, 대리/과장급, 차장/부장급, 임원급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직업에서 성취한 정도는 매우 낮은 성취에서 매우 높은 성취의 5점 척도로 표시되었다. 사회계층에 대한 지각은 극빈층, 하류층, 중류층, 상류층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였다.

결혼상태는 미혼, 결혼, 별거, 사별, 이혼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였다. 결혼한 경우만 맞벌이 여부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였고, 자녀가 있는 경우는 자녀의 수를 직접 기록하도록 하였다. 자녀의 성공정도는 매우 실패에서 매우 성공에 이르기까지 5점 척도였다.

#### 실시 방법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이 모여 사는 서울시 내의 세 지역을 표집대상 지역으로 선정하고, 각 지역의 주민들을 집 주소에 기초하여 무작위로 표집하였다. 질문지 실시자들이 각 세대를 방문하여 응답자를 만난 자리에서 질문지 실시를 하였다. 전업주부나 노인들만이 아니

라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가장인 성인 남자 또는 직장 여성 등도 다양하게 표집하기 위해, 저녁 퇴근 시간 이후부터 밤늦은 시간 까지 가정방문을 했다. 질문지 실시자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질문지 응답이 끝나면 수거하였다. 질문지를 스스로 읽고 응답하는데 무리가 없는 경우는 각자 응답하였으며, 노안 등으로 직접 응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인터뷰 형식으로 질문지의 내용을 읽어주면서 실시하였다.

## 결 과

### 집단별 행복의 차이

사회계층, 가정경제수준, 직업유형, 직업 성취, 결혼상태, 맞벌이 여부, 자녀 수, 자녀의 성공정도별로 행복의 차이를  $t$ -검증 또는 변량분석하였다. 이를 남자와 여자 집단 각각 별도로 분석하여 비교한 결과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사회계층은 극빈층을 하류층집단으로 포함하여 하위집단 분류를 하였다.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 세 하위집단간의 행복 차이를 변량분석 하였을 때, 남자와 여자 모두  $p < .001$  수준에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Duncan 검증 결과, 남자 집단에서는 중류층과 상류층이 동질집단으로 나타나고, 하류층이 이질집단으로서 행복의 평균값이 낮았다. 그러므로 남자 집단에서 중 상류층이 하류층보다 더욱 행복함을 알 수 있다. 여자 집단에서는 하류층보다는 중류층이, 중류층보다는 상류층의 행복 평균값이 더 높았고, 하류층보다 상류층이 더욱 행복하였다.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 모두

하류층이 가장 행복도가 낮고 상류층으로 갈수록 더욱 행복함을 알 수 있다.

가정경제수준에 대한 주관적인 지각은 하집단과 중하집단은 하집단으로, 중집단은 그대로 중집단으로, 중상집단과 상집단은 상집단으로 분류되었다. 세 집단간 차이를 변량분석한 결과, 남자와 여자의 경우 모두  $p < .001$  수준에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Duncan 검증 결과, 중집단과 상집단이 동질집단으로 분류되었으며, 하집단이 낮은 평균값을 보였다. 따라서 남녀 모두 가정경제수준이 중간 이상인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더욱 행복의 정도가 높았다.

직업에서의 직급별로 변량분석한 결과는 남자와 여자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 $p > .05$ ). 그러므로 평사원에서부터 임원에 이르기까지, 직급이 낮고 높음에 따라 행복에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직업유형별로 변량분석한 결과는 남자 경우에  $p < .05$  수준에서, 여자 경우는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Duncan 검증 결과, 남자는 판매/서비스직과 사무/관리직이 동질집단이었으며, 고위관리/전문직은 이질집단이었었는데, 고위관리/전문직의 평균값이 높았다. 여자는 노동/생산직과 판매/서비스직 및 사무/관리직이 모두 동질집단이었고, 고위관리/전문직만 이질집단이었다.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 집단 모두, 고위관리/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직업유형 집단에 비해 더욱 행복하였다.

직업 성취는 매우 성공과 약간 성공을 높은 성취집단으로, 보통을 보통집단으로, 약간 실패와 매우 실패를 낮은 성취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세 하위집단에서 행복의 차이를 변량분석하였을 때, 남자는  $p < .001$  수준에서, 여자는

표 1. 집단별 행복의 차이

독립변인	하위집단	남자			여자		
		M	SD	t/F	M	SD	t/F
사회계층	상류층	75.83 <sup>b</sup>	11.75	14.80 <sup>***</sup>	82.08 <sup>b</sup>	7.98	10.59 <sup>***</sup>
	중류층	69.89 <sup>b</sup>	12.88		71.56 <sup>ab</sup>	13.63	
	하류층	55.00 <sup>a</sup>	15.54		60.30 <sup>a</sup>	14.27	
가정경제 수준지각	상	74.62 <sup>b</sup>	13.60	12.04 <sup>***</sup>	75.27 <sup>b</sup>	12.11	10.47 <sup>***</sup>
	중	68.79 <sup>b</sup>	11.48		71.36 <sup>b</sup>	13.67	
	하	57.73 <sup>a</sup>	17.56		60.96 <sup>a</sup>	14.77	
직급	평사원	65.99	13.55	1.32	66.57	11.89	2.53
	대리/과장급	62.53	14.47		67.50	8.25	
	차장/부장급	61.67	14.89		55.83	12.96	
	임원급	70.00	16.59		80.33	14.97	
직업유형	노동/생산직	68.17 <sup>ab</sup>	17.43	3.48 <sup>*</sup>	60.67 <sup>a</sup>	8.04	5.82 <sup>**</sup>
	판매/서비스직	62.67 <sup>a</sup>	9.43		67.94 <sup>a</sup>	11.88	
	사무/관리직	63.16 <sup>a</sup>	16.09		66.57 <sup>a</sup>	16.05	
	고위관리/전문직	72.64 <sup>b</sup>	13.12		81.67 <sup>b</sup>	8.16	
직업 성취	높은 성취	74.35 <sup>c</sup>	11.34	29.56 <sup>***</sup>	73.43 <sup>b</sup>	15.80	4.93 <sup>**</sup>
	보통	63.91 <sup>b</sup>	13.60		65.46 <sup>ab</sup>	12.60	
	낮은 성취	48.82 <sup>a</sup>	11.96		59.38 <sup>a</sup>	7.81	
결혼상태	미혼	66.19	14.37	.96	65.97 <sup>a</sup>	12.67	3.09 <sup>*</sup>
	결혼	65.36	15.65		67.80 <sup>ab</sup>	14.39	
	사별	71.15	13.87		72.86 <sup>b</sup>	15.01	
맞벌이 여부	맞벌이 부부	65.28	13.76	-.43	70.17	15.08	.23
	외벌이 부부	67.28	14.65		69.02	13.81	
자녀 수	1명	63.57	14.19	1.79	75.88	13.08	.80
	2명	66.75	15.71		70.82	16.00	
	3명	74.67	10.49		68.82	14.44	
	4명	70.00	14.21		69.17	14.44	
	5명	65.56	11.71		66.25	14.29	
	6명 이상	55.00	21.47		69.38	14.27	
자녀의 성공정도	매우 성공	79.39 <sup>b</sup>	14.38	6.69 <sup>***</sup>	81.67 <sup>c</sup>	12.21	9.98 <sup>***</sup>
	약간 성공	71.19 <sup>ab</sup>	11.47		69.07 <sup>b</sup>	13.58	
	보통	59.88 <sup>a</sup>	15.94		66.03 <sup>ab</sup>	13.43	
	약간 실패	62.22 <sup>a</sup>	1.92		55.83 <sup>a</sup>	15.78	

\*  $p < .05$ , \*\*  $p < .01$ , \*\*\*  $p < .001$

<sup>a, b, c</sup>는 Duncan test 결과임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Duncan 검증 결과, 남자는 높은 성취집단과 보통 집단 및 낮은 성취집단이 모두 이질집단으로 확인되었다. 여자는 높은 성취집단과 낮은 성취집단이 이질적으로 나타났다. 남자와 여자 모두에서 낮은 성취집단보다는 높은 성취집단이 더욱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그러므로 직업에서 성취한 사람들이 성취하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 더욱 행복함을 알 수 있다.

결혼상태의 하위집단 중에서 별거와 이혼이 극히 일부에 불과하여 하위집단 구성이 곤란하므로 분석에서 제외하고, 미혼 결혼 사별집단만을 하위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변량분석 결과, 남자의 경우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여자는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Duncan 검증 결과, 여자들은 미혼집단과 사별집단이 이질집단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남자는 미혼이든 결혼이든 사별이든 행복에 대한 지각에서 차이가 없으나, 여자는 미혼보다는 사별한 사람이 더욱 행복한 차이가 있었다.

맞벌이 부부 여부별로는 행복의 차이를  $t$ -검증하였을 때, 남자와 여자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 > .05$ ). 그러므로 맞벌이 부부이나 또는 외벌이 부부이나에 따라서는 행복에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자녀 수에 따른 행복의 차이를 변량분석한 결과, 남자와 여자 모두 행복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 > .05$ ). 그러므로 자녀 수가 적으나 많으나는 사실 자체로 인해 행복지각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남녀 모두에서 확인되었다.

자녀의 성공정도는 매우 실패에 응답한 사람이 남자에서 1명, 여자에서는 없었기 때문에, 매우 실패 범주를 제외하고 네 하위집단 간에 행복의 차이를 변량분석하였다. 남자와 여자 모두  $p < .001$  수준에서 매우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 Duncan 검증 결과는 남자 경우에 보통과 약간 실패가 동질집단으로 나오고, 매우 성공은 이질집단으로 확인되었다. 매우 성공집단이 보통이나 약간 실패집단보다 평균값이 높았다. 여자는 약간 실패집단, 약간 성공집단, 매우 성공집단이 이질적으로 확인되었다. 매우 성공집단이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약간 성공집단, 약간 실패집단의 순서를 나타내었다.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 모두 자녀가 매우 성공적으로 성장했다고 지각하는 집단이 가장 행복하였다.

#### 행복과 관련 변인들간의 관계

행복과 관련 변인들 즉 월평균수입, 연령, 학력, 정서적 지원, 자기효능감, 직업 성취, 자녀 성공과의 상호상관을 성별 집단 각각 구한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남자집단의 경우를 보면, 행복이 투입 변인 중에서 정서적 지원과  $r = .66$ 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직업 성취와  $r = .60$ 으로서, 이 두 변인이 .60 이상의 매우 높은 정적 상관계수를 나타내었다. 그 다음으로 자기효능감 및 자녀 성공이 모두  $r = .51$  이상의 높은 정적 상관계수를 보였다. 그 다음으로 학력과 월평균 수입도 낮은 정적 상관이 있었으나, 연령은 무상관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남자 성인의 경우에 다른 변인들보다도 정서적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직업에서 성취가 높을수록 행복이 높은 경향이 시사되고 있다.

한편 여자집단의 경우를 보면, 행복이 투입 변인 중에서 정서적 지원과  $r = .58$ 로 가장 높은 정적 상관계수를 보였고, 두 번째로는 자기효능감과  $r = .51$ 로서, 이 두 변인이  $r = .50$  이상의 높은 정적 상관계수를 나타내었다. 물론

표 2. 행복과 관련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분석

<남자 집단>

	월평균 수입	연령	학력	정서적 지원	자기 효능감	직업 성취	자녀 성공	행복 전체
월평균 수입	1.00							
연령	-.14	1.00						
학력	.27**	-.36***	1.00					
정서적 지원	.10	.00	-.01	1.00				
자기효능감	.20*	-.29***	.31***	.53***	1.00			
직업 성취	.21*	.10	.24**	.35***	.32***	1.00		
자녀 성공	.20	-.22*	.30**	.45***	.35**	.39***	1.00	
행복전체	.19*	.00	.22*	.66***	.52***	.60***	.51***	1.00

\*  $p < .05$ , \*\*  $p < .01$ , \*\*\*  $p < .001$

<여자 집단>

	월평균 수입	연령	학력	정서적 지원	자기 효능감	직업 성취	자녀 성공	행복 전체
월평균 수입	1.00							
연령	.05	1.00						
학력	-.03	-.76***	1.00					
정서적 지원	.01	.36***	-.08	1.00				
자기효능감	.07	-.10	.30***	.38***	1.00			
직업 성취	.16	-.12	.11	.26*	.34***	1.00		
자녀 성공	-.05	.15	-.01	.21*	.23***	.36***	1.00	
행복전체	.23*	.20*	.09	.58***	.51***	.42***	.41***	1.00

\*  $p < .05$ , \*\*\*  $p < .001$

직업 성취와 자녀 성공과도 모두  $r = .41$  이상의 높은 정적 상관계수를 보였다. 행복이 월평균수입과 연령과는 낮은 정적 상관이 있었으나, 학력과는 무상관을 보였다.

행복과 관련변인들간의 상관을 성별로 분석한 위의 결과를 정리하여 볼 때, 남녀를 불문

하고 행복은 정서적 지원, 자기효능감, 직업 성취, 자녀 성공과 전반적으로 높은 정적 상관을 갖고, 특별히 정서적 지원과 특별히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갖는다는 점에서 일치하였다. 그러나 남자는 정서적 지원 다음으로 직업 성취가, 여자는 정서적 지원 다음으로

자기효능감이 두 번째로 중요하게 부각되는 차이점이 드러났다.

또한 남자 집단에서는 학력이 행복과 정적으로 관련되고 연령은 무상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 집단에서는 오히려 연령이 행복과 정적으로 관련되고 학력은 무상관인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남자 집단에서는 학력이 직업 성취 및 자녀 성공과 모두 정적 상관이 있었으나, 여자 집단에서는 무상관으로 나왔다. 이외에도 남자 집단에서는 학력이 월평균 수입과 정적 관계였으나, 여자 집단에서는 학력이 월평균 수입과 무상관이였다. 그리고 남자 집단에서는 연령이 자기효능감과 부적 상관이였으나, 여자 집단에서는 연령이 자기효능감과 무상관이였다.

이러한 표 2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행복이 정서적 지원과 특별히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이 있다는 사실은 남자와 여자 집단 모두에서 일치하였지만, 남자들은 직업 성취가 그 다음으로 중요하다면 여자들은 자기효능감이 더 중요하였고, 기타 변인들간의 상호상관의

패턴에 차이가 있는 가능성이 드러났다.

성별, 직업유무별 행복과 관련 변인들간의 관계

총 133명의 남자 중에서 직업 유무를 응답하지 않은 2명과 직업이 없는 4명을 제외하고, 직업이 있는 경우만 분석을 한 결과가 표 3의 남자 직장인 집단 상관관계 표에 제시되어 있다. 표 3에서 남자 직장인 집단의 결과는 표 2의 남자 전체 집단 결과와 일치하는 패턴을 나타내었다. 즉 정서적 지원 및 직업 성취가 행복과  $r=.60$  이상의 매우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자기효능감 및 자녀 성공도 매우 높은 정적 상관이 있었다. 그 외의 다른 변인들간의 상관관계도 표 2의 남자집단 전체 분석 결과와 유사한 형태로 나타났다.

표 3의 남자 직장인 집단의 결과가 표 2의 남자 전체 집단의 결과와 거의 대동소이하게 나타난 이유는 표 2 남자 전체 집단 분석 대상 중에서 불과 6명만 제외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성인 남자 중에서 직업

표 3. 행복과 관련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분석: 남자 직장인 집단

	월평균 수입	연령	학력	정서적 지원	자기 효능감	직업 성취	자녀 성공	행복
월평균 수입	1.00							
연령	-.13	1.00						
학력	.26**	-.36***	1.00					
정서적 지원	.09	.05	-.02	1.00				
자기효능감	.19	-.27**	.29***	.55***	1.00			
직업 성취	.21*	.09	.24**	.35**	.33***	1.00		
자녀 성공	.20	-.22*	.29*	.44***	.34**	.39***	1.00	
행복	.19*	.01	.22*	.66***	.53***	.60***	.51***	1.00

\*  $p < .05$ , \*\*  $p < .01$ , \*\*\*  $p < .001$

이 없는 경우는 매우 일부에 해당되므로, 무작위로 표집한 연구대상 중에서도 직업이 없는 성인 남자는 일부만 포함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의 분석대상 중에서 직업이 없는 남자는 4명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관관계를 추가로 분석하지 않았다.

여자 집단에 대한 분석은 직장인과 전업주부의 두 집단으로 나뉘었다. 여자 직장인 집단은 여자 응답자 총 180명 중에서 직업 유무를 응답하지 않은 7명과 전업주부 105명을 제외한 68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가 표 4에 제시되었다. 여자 직장인 집단 경우는 행복과 가장 높은 상관계수를 보이는 변인이 자기효능감으로서  $r=.59$  이었다. 그 다음으로 정서적 지원, 직업 성취, 자녀 성공의 순서로 모두  $r=.51$  이상의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 다음으로 월평균 수입과도 정적 상관이 있었다. 그러므로 여자 직장인들은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행복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외에 정서적 지원을 많이 받거나 직업에서 성취도가 높고 자녀가 성

공하였을수록 행복한 경향이 있었다.

한편 표 3과 표 4에서 직업 성취와 관련 변인들간의 상관을 살펴보면, 여자 직장인 집단 경우에 직업 성취가 자녀 성공과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이 있고, 그 다음으로 정서적 지원, 자기효능감 및 월평균 수입과도 비교적 높은 정적 상관이었다. 남자 직장인 집단도 이와 마찬가지로 직업 성취가 자녀 성공, 정서적 지원, 자기효능감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이는 동일한 관계 패턴을 나타내었다.

표 5는 전업주부 집단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전업주부 집단은 여자 응답자 총 180명 중에서 직업 유무를 응답하지 않은 7명과 직장인 68명을 제외하고 총 105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전업주부 집단에 대한 분석에서는 직업이 없기 때문에 직업 성취 변인이 제외되었다.

전업주부 집단의 경우에 행복과 가장 높은 상관계수를 보이는 변인은 정서적 지원( $r=.60$ )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자기효능감, 자녀 성공, 연령의 순서였다. 그러므로 정서적 지원을 많

표 4. 행복과 관련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분석: 여자 직장인 집단

	월평균 수입	연령	학력	정서적 지원	자기 효능감	직업 성취	자녀 성공	행복
월평균 수입	1.00							
연령	-.65***	1.00						
학력	.57***	-.74***	1.00					
정서적 지원	-.09	.29*	-.06	1.00				
자기효능감	.25	-.16	.34**	.40***	1.00			
직업 성취	.32*	-.09	.17	.34**	.32**	1.00		
자녀 성공	.23	-.09	.06	.20	.35*	.50***	1.00	
행복	.34*	-.07	.19	.55***	.59***	.53***	.51***	1.00

\*  $p < .05$ , \*\*  $p < .01$ , \*\*\*  $p < .001$

표 5. 행복과 관련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분석: 전업주부 집단

	월평균 수입	연령	학력	정서적 지원	자기 효능감	자녀 성공	행복
월평균 수입	1.00						
연령	.15	1.00					
학력	-.08	-.77***	1.00				
정서적 지원	.01	.37***	-.06	1.00			
자기효능감	.07	-.05	.30**	.39***	1.00		
자녀 성공	-.12	.26*	-.02	.20	.18	1.00	
행복	.24*	.31**	.06	.60***	.48***	.33**	1.00

\*  $p < .05$ , \*\*  $p < .01$ , \*\*\*  $p < .001$

이 받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고 자녀가 성공했을수록, 그리고 연령이 많을수록 더욱 행복한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비교해 보면, 여자 직장인과 전업주부 집단 모두 정서적 지원, 자기효능감, 자녀 성공 변인과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이는 공통점이 있었다. 그러나 상관의 강도를 볼 때, 여자 직장인은 자기효능감이, 전업주부는 정서적 지원이 행복과 가장 높은 상관을 갖는다는 차이가 있었다.

이외에도 두 집단은 여러 변인들간의 관계에서 차이가 있었다. 여자 직장인 집단은 학력이 월평균 수입과 높은 정적 상관이 있음으로써 남자 직장인 집단과 같은 패턴을 보였으나, 전업주부 집단은 학력이 월평균 수입과 무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여자 직장인 집단이 전업주부 집단보다는 남자 직장인 집단과 더욱 유사한 측면을 나타낸다.

성별, 직업유무별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성별 직업유무별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가 표 6~표 8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남자 직장인의 행복에 대한 중다회귀분석을 위계적(hierarchical)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가 표 6이다. 1단계에서는 학력, 연령, 월평균수입, 정서적 지원, 자기효능감을 동시에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였다. 이어서 2단계에서는 자녀 성공을, 3단계에서는 직업 성취를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였다.

먼저 남자 직장인 집단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1단계에서  $R^2$  값이 .60으로 매우 높은 값을 보이고,  $F$ 검증 결과  $p < .001$  수준에서 매우 의미있는 값으로 확인되었다. 1단계에서 정서적 지원의  $\beta$  값이 가장 높았고 ( $p < .001$ ), 그 다음으로 학력( $p < .05$ )이었으며, 다른 변인들의  $\beta$  값은 모두 의미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5$ ). 2단계에서 자녀 성공 변인을 추가하였을 때  $R^2$  값은 .61로서 단지 1%의 설명변량만이 증가함으로써,  $R^2$  변화량에 대한  $F$ 검증 결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p > .05$ ). 그러나 3단계에서 직업 성취 변인을 추가하였을 때  $R^2$  값은 .70으로서 단지 9%의 설명변량이 증가하였고,  $R^2$  변화량에 대한

표 6.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남자 직장인 집단

	투입독립변인	B	$\beta$	t	R <sup>2</sup>	R <sup>2</sup> 변화량	F
1	학력	.12	.25	2.50*	.60	.60	17.19***
	연령	.00	.03	.28			
	월평균수입	.00	.08	.85			
	정서적 지원	.44	.58	5.67***			
	자기효능감	.15	.19	1.70			
2	학력	.11	.23	2.27*	.61	.01	1.52
	연령	.00	.04	.43			
	월평균수입	.00	.07	.75			
	정서적 지원	.40	.52	4.60***			
	자기효능감	.15	.18	1.67			
3	학력	.06	.12	1.27	.70	.09	17.27***
	연령	-.00	.00	-.01			
	월평균수입	.00	.05	.59			
	정서적 지원	.34	.44	4.35***			
	자기효능감	.07	.09	.90			
	자녀 성공	.06	.07	.82			
	직업 성취	.26	.38	4.16***			

\*  $p < .05$ , \*\*\*  $p < .001$

F검증 결과는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그런데 3단계에서 직업 성취 변인이 추가되었을 때, 정서적 지원 변인은 1, 2단계에서와 마찬가지로 됨으로써  $p < .001$  수준에서 매우 유의한 것으로 유지되었으나, 1단계에서  $p < .05$  수준의 유의도를 보이던 학력 변인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변화되었다( $p > .05$ ). 대신에 직업 성취 변인의  $\beta$  값이 .38로 높으면서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따라서 남자 직장인 경우에 주위 사람들로 부터 칭찬과 위로 및 격려와 같은 정서적 지

원을 받았을 때 가장 행복하며, 자녀가 성공한 정도는 남자 직장인의 행복을 유의하게 증진시키지 못하지만, 직업 성취도는 정서적 지원 다음으로 행복한 정도를 10% 정도 증가시켜 주었다.

여자 직장인 집단을 대상으로 위계적(hierarchical) 방법의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표 7이다. 표 6에서와 마찬가지로 1단계에서는 학력, 연령, 월평균수입, 정서적 지원, 자기효능감을 동시에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였고, 2단계에서는 자녀 성공을, 3단계에서는 직

표 7.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여자 직장인 집단

	투입독립변인	B	$\beta$	t	R <sup>2</sup>	R <sup>2</sup> 변화량	F
1	학력	-.02	-.04	-.20	.67	.67	6.21**
	연령	.01	.22	.64			
	월평균수입	.00	.41	1.22			
	정서적 지원	.10	.11	.45			
	자기효능감	.60	.64	2.87*			
2	학력	-.04	-.08	-.41	.73	.06	3.11
	연령	.01	.36	1.07			
	월평균수입	.00	.53	1.66			
	정서적 지원	.08	.08	.37			
	자기효능감	.56	.60	2.84*			
3	자녀 성공	.19	.26	1.76			
	학력	-.06	-.12	-.52	.74	.00	.13
	연령	.01	.31	.85			
	월평균수입	.00	.49	1.36			
	정서적 지원	.08	.09	.38			
	자기효능감	.55	.58	2.65*			
	자녀 성공	.17	.23	1.26			
직업 성취	.06	.09	.36				

\*  $p < .05$ , \*\*\*  $p < .001$

업 성취를 투입하였다.

표 7에 제시한 바와 같이 1단계에서 5개 변인이 투입되었을 때 총 R<sup>2</sup> 값이 .67로 매우 높았으며, R<sup>2</sup> 에 대한 F검증 결과는  $p < .01$  수준으로 유의하였다. 이때 투입변인들 중에 자기효능감의  $\beta$  값이 .64로 매우 높았다. 자기효능감이 설명변량의 대부분을 차지함으로써 다른 투입변인들은 모두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2단계에서 자녀 성공이 투입되었을 때에도 여전히 자기효능감만이 유의하였으나, R<sup>2</sup> 변화량이 6% 되었으나 이에 대한 F검증 결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p > .05$ ). 3단계에서 직업 성취가 추가로 투입되었을 때에 R<sup>2</sup> 변화량은 1% 밖에 되지 않았으며, F검증 결과 유의하지 않았다( $p > .05$ ). 그리고 투입변인 중에서는 여전히 자기효능감만이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beta$  값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직업을 가진 성인 여자의 행복을 설명하는 예언변인으로는 자기효능감이 매우 중요하며, 자기효능감의 설명력이 절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자녀 성공이나 직업 성취가 추가되어도 행복의 설

명력에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 즉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으면 행복의 대부분을 설명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8은 전업주부 집단을 대상으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표 6과 표 7에서와 마찬가지로 1단계에서 학력, 연령, 월평균수입, 정서적 지원, 자기효능감을, 2단계에서는 자녀 성공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분석대상은 직업을 갖고 있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표 6이나 표 7과 달리 3단계에서 투입할 직업에서의 성취 변인이 없으므로 3단계 없이 2단계의 자녀 성공 변인 투입만으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이 종료되었다.

1단계에서 5개 변인이 투입되었을 때 총 R<sup>2</sup> 값이 .46으로 높았으며, 이는  $p < .001$  수준으로 유의하였다. 투입변인들 중에서 자기효능감만이  $p < .05$  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 다른 투입변

인들은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2단계에서 자녀 성공이 투입되었을 때, R<sup>2</sup> 값이 .52로서 R<sup>2</sup> 변화량이 6% 증가되었고, 이에 대한 F검증 결과  $p < .05$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자녀 성공 변인이 2단계에서 투입되었을 때 자녀 성공의  $\beta$  값이  $p < .05$  수준에서 유의하였고, 또한 월평균 수입의  $\beta$  값이  $p < .05$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그러나 1단계에서 유일하게 의미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던 자기효능감은 2단계에서 자녀 성공이 투입되어 자녀 성공과 월평균 수입 변인이 의미있는 변인으로 되면서, 자기효능감 변인이 의미있는 변인에서 제외되었다( $p > .05$ ).

그러므로 직업을 갖지 않은 성인 여자의 행복을 설명하는 예언변인은 직업을 가진 성인 여자나 성인 남자와는 판이하게 달랐다. 즉 직업을 갖지 않은 성인 여자는 자녀가 성공적일 때, 그리고 가정의 월평균 수입이 높을 때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전업주부 집단

	투입독립변인	B	$\beta$	t	R <sup>2</sup>	R <sup>2</sup> 변화량	F
1	학력	.15	.35	1.96	.46	.46	8.48***
	연령	.01	.36	1.95			
	월평균수입	.00	.21	1.88			
	정서적 지원	.19	.21	1.56			
	자기효능감	.29	.34	2.61*			
2	학력	.13	.30	1.77	.52	.06	5.66*
	연령	.01	.26	1.42			
	월평균수입	.00	.26	2.41*			
	정서적 지원	.21	.24	1.83			
	자기효능감	.20	.24	1.80			
	자녀 성공	.20	.27	2.38*			

\*  $p < .05$ , \*\*\*  $p < .001$

##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한국의 성인 남녀가 행복에 이르는 길이 같은지, 만약 다르다면 어떤 점이 얼마나 다른 것인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시작되었다. 즉 행복형성 과정에서 성차가 있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사이에 성별로 어떠한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밝혀진 가장 핵심적인 결론은, 행복에 이르는 길은 매우 다양하다는 사실이다. 이는 성별에 따라, 동시에 직업 여부에 따라,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의미 있는 변인들이 상당히 다르다는 사실에 기초한다. 즉 가정에서 소위 가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성인 남자 직장인들에게는 주위 의미있는 사람으로부터의 정서적 지원과 직업에서의 성취가 가장 중요하였고, 가정에서 엄마와 아내의 역할을 수행하는 전업주부들에게는 자녀의 성공과 남편이 벌어드리는 가정의 월평균 수입이 가장 중요하였으며, 성인 여자 직장인들로서는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강한 자기효능감이 행복해지는 가장 지름길이 밝혀졌다.

즉 각 개인이 처해있는 환경과 입장과 역할에 따라 행복을 의미있게 설명하는 변인들이 모두 달랐다. 이와 같이 행복의 핵심조건이 다양하게 다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드러나는 사람들의 가치관과 목표의식과 추구행동이 충분히 다를 수 있다. 이 글을 시작하며, 돈을 버는 일에 몰두하는 삶이나, 창의적인 성취를 추구하는 삶이나, 목숨을 걸고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삶, 그 모든 다양한 행동들이, 다른 시각에서는 이해가 어려워도 나름대로 추구하는 행복과 그 과정에서의 보람과 만족이 피드백 되고 있다.

아래에서는 첫째, 이 연구에서 밝혀진 행복에 이르는 다양한 길에 관련하여 논의하고, 둘째, 이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 행복에 이르는 다양한 길

이 연구의 결과로부터 성별에 따라 또한 직업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행복에 이르는 길이 얼마나 다른가가 확인되었다.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 남자 직장인과 여자 직장인 및 전업주부의 행복을 의미있게 설명하는 예언변인들 매우 큰 차이가 있었다. 남자 직장인의 행복은 주위사람들의 정서적 지원을 충분히 받는 것이 가장 영향력이 있었고, 그 다음으로 자신의 직업에서 성취할 때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녀의 성공은 연령이나 월평균 수입과 같은 변인처럼 행복을 의미있게 설명하는 변인으로 포함되지 않았다(표 6 참고). 이에 비해 여자 직장인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강한 자기효능감이 있을 때 가장 행복하였다. 자녀의 성공이나 직업에서의 성취 변인이 투입되어도, 이러한 자기효능감 변인에 의해 설명되는 행복의 설명변량을 의미있게 추가시키지 못하였다(표 7 참고). 한편 전업주부의 행복은 자녀가 성공한 정도에 의해 가장 영향력이 컸으며, 그 다음으로 가정의 월평균 수입이 의미있는 변인으로 추가되었다(표 8 참고).

전업주부가 행복하게 지각하는 삶은 주위사람들과 연결된 것이라는 점이 발견되었다. 즉 자녀가 성공적으로 성장하여 자부심을 갖고, 남편이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위치에서 돈을 잘 벌어서 가정의 월평균 수입이 높고 가계가 안정이 되면 행복의 가장 중요한 기본

조건이 충족되었다. 따라서 전업주부는 남자 직장인처럼 개인적인 직업에서의 성취나, 여자 직장인처럼 자기효능감과 같이 본인과 관련된 특성보다는, 자녀나 남편과 같은 주위사람들과 관련된 특성이 자신의 행복에 중요한 잣대가 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보다 관계지향적인 삶을 추구하고 그 속에서 행복을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특별히 자녀의 성공이 전업주부의 행복을 설명하는 의미있는 변인이라는 사실이 흥미롭다. 김혜원과 김명소(1998)의 연구에서 전업주부가 취업주부보다 아들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자녀의 성공이 자신의 행복이라고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전업주부들이 취업주부보다는 자녀들에게 보다 집착하고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전업주부들이 자녀의 성공을 행복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두고 있다는 결과는, 우리 사회에서 어머니들의 뜨거운 교육 열풍을 설명하는 하나의 경험과학적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어머니들이 자녀교육을 위해 소위 치맛바람을 일으키며 올인원하는 현상(박영신, 김의철, 2002)의 기저에 있는 전업주부 어머니들의 심리를 이 연구의 결과는 밝혀주고 있다. 자녀의 사회적 성공은 자녀의 대학입시 결과와 같은 학업성취의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고 보므로, 자녀의 성공을 위해 엄청난 교육비를 투자하며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이 연구에서 밝혀진 전업주부 어머니들의 심리적 역동을 보면 자녀의 성공이 자신의 행복을 설명하는 가장 핵심변인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인의 모자관계가 독립된 개체로서가 아니라 확대된 자기로서 중복된 측면을 공유하고 있다는 선행연구(김의철, 박

영신, 2006)에서의 지적과도 일치한다. 한국 학생들의 팔목할만한 학업성취는 이러한 한국인 모자관계의 토착적인 특징들과 무관하지 않다(Kim & Park, 2006).

여자 직장인의 경우는 자기효능감이 행복을 설명하는 가장 결정적인 변인으로 부각되었으며, 자기효능감의  $\beta$  값이 .64로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투입변인도 설명변량을 의미있게 증가시키지 못하였다. 이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은 어려움극복효능감을 측정한 것이므로, 결국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강한 신념과 그러한 실제적인 기술 및 능력을 가진 직장여성들일수록 가장 행복하다는 사실이다. 전업주부의 행복을 설명하는 변인들로 자녀의 성공이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었던 것과는 전혀 달리, 직업을 가진 성인 여자들의 행복은 자기효능감에 의해 의미있게 설명되었고, 자녀의 성공이 행복을 추가적으로 의미있게 설명하지 못하였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성인 여자가 직업을 갖고 활동을 하려면 얼마나 험난한 어려움들이 많은가를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일 수도 있다. 특히 결혼을 한 여자가 직장생활을 하려면 가정에서 어머니로서 또한 아내로서 역할을 감당하면서 동시에 직장에서도 요구하는 과업도 성취해 나가야 하므로, 그러한 많은 역할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에 부딪치기 마련이다. 여러 장애들을 효율적으로 극복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만 가정도 편안하고 직업에서도 성취가 가능하므로, 여자 직장인들의 행복은 자신의 어려움극복효능감이 핵심키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녀 성공이나 직업 성취를 포함하여 다른 어떤 변인들도 의미있는 예언변인으로 포함되지 않고 오로지 자기효능감만 행복을 의미있게 설명하는

변인으로 포함된 사실은, 여자 직장인들이 자녀의 성공이나 직업의 성취에 대해 그 자체를 행복하게 받아들이고 감사하기에는 사회적으로 도전하고 이겨나가야 할 과제가 너무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자기효능감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은 많은 연구들에서 확인되어 왔다. Bandura(1997)는 개인이 갖는 효능적 신념이 건강과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인임을 다양한 경험과학적 연구결과들을 통해 증명하였다. 김의철, 홍천수, 이정권과 박영신(2005)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의 삶의 질에 대한 분석을 하였을 때, 자기효능감이 높은 환자일수록 신체적인 질병에 대한 관리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면까지 포함하는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김은정, 오경자와 하은혜(1999)가 기혼여성들의 우울증상에 대한 취약성을 연구하였을 때, 자기효능감은 우울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었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이 직무성취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직무만족도도 높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박영신, 김의철, 박은실, 2009)는 이 연구에서 여자 직장인을 대상으로 밝혀진 결과와 일관된 맥락 속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별히 여자 직장인들은 높은 자기효능감으로 가정을 잘 관리하면서 동시에 직장에서 직무성취도를 높여 나갈 수 있을 때,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남자 직장인의 경우는 주위사람들로부터의 정서적 지원이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갖는 변인이고 그 다음으로 본인의 직업에서 성취가 행복을 설명하는 의미있는 변인으로 포함되었다. 여기에서 행복을 위한 정서적 지원의 중요한 역할을 생각해 보게 된다. 이 연구에서

남자 직장인만 정서적 지원이 행복을 설명하는 가장 설명력 있는 변인으로 포함되고(표 6 참고), 여자 직장인이나 전업주부의 경우는 정서적 지원이 의미있는 변인으로 포함되지 않았다(표 7, 표 8 참고). 그렇다고 해서 성인 여자의 행복을 설명하는데 정서적 지원이 의미없다고 해석해서는 안될 것이다. 여자 직장인의 경우는 자기효능감의 영향력이 너무나 크고, 전업주부의 경우는 자녀의 성공이나 가정의 월평균 수입의 영향력이 너무나 커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에서 상대적인 설명변량의 비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의미있는 변인으로 포함되지 못했다고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상관관계 분석을 한 결과를 보면, 남자 직장인의 경우에 정서적 지원과 행복의 상관인  $r=.66$ 으로 가장 높았지만(표 3 참고), 전업주부나 여자 직장인도 각각  $r=.60$   $r=.55$ 로서 매우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표 4, 표 5 참고).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이기 때문에, 주위에서 정서적 지원을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더욱 행복하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물론 상관관계이므로 인과적인 해석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경향은 충분히 검토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정서적 지원은 성별이나 직업유무를 초월하여 행복하기 위해 중요한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성인의 행복을 위한 정서적 지원의 중요성은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밝혀져 왔다. 배우자의 정서적이고 정보적인 지원은 성인의 가정생활만족도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영향력이 큰 변인이었다(박영신, 김의철, 2008). 박영신과 김의철(2009)의 연구에서는 관계적 자원인 주위사람들로부터의 정서적 지원이 성인의 행복을 설명하는 핵심적인 활력제임이 검증되었다. 즉 주위 사람들로부터

따스한 정서적 지원을 받으면 월평균 수입이 높은 것보다 행복에 대한 효과가 4~5배 정도 되었다. 김은정, 오경자와 하은혜(1999)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원의 정도가 기혼여성들의 우울증상 취약성을 의미있게 설명하는 것으로 밝혔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에서 밝혀진 정서적 지원의 중요성은, 이 연구에 의하면 남자 직장인들에게 특별히 의미있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인 남자 직장인들이 직업세계에서의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가면서 느끼는 많은 스트레스를 가정에서 배우자나 또는 가까운 친구나 또는 직장에서의 동료 등 가까운 주위사람들로부터의 정서적 지원을 통해 이겨 나갈 수 있을 때 행복할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한국 사회의 많은 성인 남자들이 퇴근 후에 술자리를 많이 하는 이유 중의 하나도 마음을 터놓을 가까운 사람들과 만나 정서적 지원을 받기를 원하는 하나의 심리적인 현상일 가능성도 있다.

한편 남자 직장인의 행복은 정서적 지원 외에도 직업 성취에 의해 의미있게 설명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직업 성취가 행복의 예언변인으로 포함되는 것은, 여자 직장인이나 전업주부에서와 전혀 다른 결과이다. 여자 직장인은 어떻게 해서든지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자기자신과의 싸움을 통해 행복을 쟁취하려고 한다면, 남자 직장인은 직업에서의 성취 자체를 크게 즐기는 것으로 보인다. 남자 직장인들은 직업에서 성취할 때 크게 행복해지기 때문이다.

남자 직장인의 행복이 직업 성취에 의해 의미있게 설명되지만 월평균 수입에 의해서는 의미있게 설명되지 않았다. 결국 성인 남자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행복을 지각하게 되는 것

은, 매달 받는 월급의 수준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그 직장에서 일하면서 얼마나 성취 경험을 하느냐에 따른 것임을 알 수 있다. 물론 월급이 많은 것이 적은 것보다 훨씬 낫겠지만, 월급이 올라가면 그것이 일시적인 즐거움에 그치고, 그것이 지속적인 행복감을 주지는 못할 가능성이 있다. 월급이 더 많다고 해서 행복감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일하는 직업 분야에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때 그것이 남자 직장인들의 행복감으로 연결된다. 직업에서의 성취가 직업에서의 만족으로 직접적인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음은 교사 집단을 대상으로 교직만족도와 교직성취도를 규명한 최근의 연구(박영신, 김의철, 박은실, 2009)에서도 밝혀진 바 있다. 월평균 수입보다는 직업에서의 성취가 행복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임은 박영신과 김의철(2009)이 성인남녀 집단을 대상으로 경로분석한 결과에서도 확인되었다. 직업에서 성취감을 느낄수록 월평균 수입이 높은 것보다 행복에 대한 효과가 2배 정도 되었다. 월평균 수입이 행복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만, 월평균 수입 변인이 제외되어도 행복모형의 적합도에 변화가 없었다. 따라서 돈이 있을수록 더 행복하지만, 돈이 없어도 몇몇 핵심 변인들이 존재한다면 마찬가지로 행복할 수 있었는데 그러한 핵심변인에 직업성취가 포함되었다. 즉 남자 직장인들에게 있어 직업에서의 성취를 경험할 수 있다면 월평균 수입이라는 경제적 자원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남자 직장인들은 월평균 수입보다는 본인이 직업에서 성취감을 갖는 것이 행복을 느끼는 중요한 변인이지만, 전업주부들은 직업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직업에서 성취감이 없더라도 가족의 월평균 수입이 높아서 가정경제

가 안정이 되면, 예컨대 남편이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하였다. 가정에서 남편들은 월수입 자체보다는 직업에서의 성취감을 통해 더욱 행복하려고 한다면, 직업을 갖지 않고 가정을 지키는 전업주부 부인의 경우는 남편이 돈을 잘 벌어서 주면 더욱 행복하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직업에서의 성취감이나 아니면 월평균 수입이냐가 핵심 이슈로 떠오르는 상황이 될 때, 남편과 아내가 추구하는 행복의 길이 다르기 때문에 때로 한 지붕 두 가족처럼 동상이몽하며 갈등을 겪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 성인 남녀가 행복에 이르는 길에 대해 이 연구의 결과가 말해 주는 답변을 간단히 정리해 본다면, 전업주부들은 가정에서 자녀의 성공에 대리성취감을 느끼며 전력투구하면서 남편이 풍부한 월급을 가져다 줄 때 가장 행복하였다. 남자 직장인들은 배우자든 친구든 간에 주위의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충분히 받으며 자신의 직업적인 성취를 향해 출달음칠 때 가장 행복하였다. 그러나 여자 직장인들은 사회적으로 직업에서의 성취와 가정의 평안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쫓기 위해 수많은 도전적 과제들 앞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발버둥 치며, 자기효능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들에게는 자녀의 성공이든 직업에서의 성취든 모두 자기효능감의 결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자 직장인들이 행복하기 위해 오로지 자기효능감이 강력히 필요하다는 사실은, 아직까지 한국 사회가 여러 역할을 소화해 내어야 하는 여성들에게 그렇게 녹녹치 않은 강한 장벽들을 갖고 있음을 여자 직장인들이 지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후속연구를 위한 시사점

이 연구의 과정에서 밝혀진 후속 연구를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차 연구에서 여성이 남성에 대비되는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이라기보다는, 직장생활을 통한 사회 활동 여부와 역할 등에 따라 여성이 매우 질적으로 다른 집단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동안 이루어진 성차 연구에서 집단을 분류할 때 당연히 남자와 여자로 나뉘었다. 지금부터 수 십 년 전에는 그러한 구분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남자는 대부분 직장생활을 하고 여자는 대부분 전업주부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 변동에 따라 성인 여성들이 직업을 갖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앞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차의 연구는 남자와 여자라는 단순한 이분법적 구분이 아니라, 여자 중에서도 직업여성과 취업여성이라는 구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즉 여자라는 생물학적인 성이 그들을 공통분모로 단일화시키기에 너무나 질적으로 다른 사회 환경적 영향과 이에 따른 심리적 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가정에서 자녀의 성공을 위해 전력투구하고 그것을 행복의 핵심요건으로 인식하며, 남편의 성공을 뒷바라지 않고 그 성취에 더불어 만족하며 살아가는 전업주부와, 자신의 직업 세계에서 성취를 추구하고 동시에 가정을 화목하게 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의 모든 일들을 극복해 나가야 할 과제로 인식하여 해결하는 즐거움을 누리는 여자 직장인의 삶은 질적으로 매우 다르다. 그들이 모두 행복을 추구하며 살고 있지만 행복에 이르는 길을 다르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가치추구,

스트레스 대처, 행동 방식, 삶의 양식에 구체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후속연구에서는 직업을 갖고 자기의 전문적인 세계를 추구해 나가는 성인 여자의 삶과 직업을 갖지 않고 화목한 가정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는 전업주부 삶의 심리 행동적 측면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이 연구에서는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인의 차이만을 밝힌 것이므로, 이외에도 다른 여러 변인들을 중심으로 집단간의 특징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예컨대 기혼여성 중에서도 전업주부와 직장여성들의 행복과 관련된 정교한 연구설계를 하여, 전업주부와 직장여성들의 행복 지각의 경로에 대한 분석을 보다 섬세하게 할 필요가 있다. 김혜원과 김명소(1998)의 연구에서도 전업주부와 취업주부들이 자녀로 인한 심리적 안녕감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둘째, 직업을 가진 여성도 직업의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그에 따라 관련된 심리현상들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자 직장인 집단도 보다 정교하게 분류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표집이 총 313명으로 남녀 각각 133명, 180명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인 남녀 각각의 직업이 있는 경우와 직업이 없는 경우로 분류하여 분석하는데 그쳤다는 아쉬움이 있다. 여성들이 직업이 있는 경우에도 고위직이나 전문직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와 단순노동직이나 일용직에 종사하는 경우에 따라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등에 대해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생존의 절박한 상황에 휘말려 직업을 갖지 않으면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현실에 뛰어들 수 밖에 없는 여

성 근로자와, 직업세계에서의 성취를 통해 사회적 인정과 자아실현을 하는 전문직 여성이, 행복을 추구하는 심리적 메커니즘에서 어떠한 차이점이 있으며, 더불어 동시대를 살아가는 한국의 여성 직업인으로서 어떠한 공통점이 있는가를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서는 이에 적합한 표집설계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자기효능감의 증진을 통해 행복과 같은 긍정심리가 향상되므로, 심리적 매개변인으로 자기효능감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스포츠(박수정, 2009)나 요가(조옥경, 2009) 등 신체적인 활동을 통해서도 행복한 긍정심리를 증진시킬 수 있지만, 자기효능감의 증진과 같은 심리작용을 통해서도 행복이 증진되는 것으로 이 연구에서 밝혀졌다. 물론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에서 여자 직장인 집단에서만 자기효능감이 의미있는 설명변인으로 작용하였지만(표 7 참고), 남자 직장인 집단과 전업주부 집단에서도 상관관계분석 결과를 보면 자기효능감은 행복과 각각  $r=.53$ 과  $r=.48$ 로 높은 정적 상관계수를 나타내었다(표 3, 표 5 참고).

심리적 자원으로서 자기효능감이 성인의 행복에 영향력 있는 핵심 변인이라는 사실은 여러 선행연구들을 통해 확인되어 왔다. 박영신과 김의철(2009)의 연구에서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효능감이 높을수록 성인 남녀가 더욱 행복하였는데, 자기효능감은 월평균 수입보다 행복에 대한 효과가 2배 정도 되었다. 뿐만 아니라 자기효능감은 정서적 지원과 행복 사이에서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였다. 박영신과 김의철(2008)이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의 부모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녀와 의사소통을 잘 하며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할 수 있는 효능감이, 배우자의 사회적 지원과 가정생활만족도 및 자녀에 대한 신뢰와 가정생활만족도 사이에서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였다. 그러므로 배우자로부터 사회적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또는 자녀를 신뢰할수록 자기효능감이 증진되고, 이에 따라 성인의 가정생활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의 가정생활만족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변인으로서 자기효능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준다. 앞으로도 행복에 대한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은 비중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성인의 행복을 설명하는 변인으로서 정서적 지원의 중요성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는 남자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행복을 설명하는 가장 의미있는 변인이었다(표 6 참고). 물론 여자 직장인과 전업주부 집단에서는 정서적 지원 변인이 설명변량을 의미있게 추가하지 못하였으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매우 높은 정적 상관을 나타내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표 4, 표 5 참고). 이러한 결과는 주위 의미있는 사람들의 정서적 지원이 성인의 행복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정서적 지원이 건강과 행복에 영향력 있는 변인임은 많은 연구들에서 확인되어 왔다(House, Landis & Umberson, 1988). 박영신과 김의철(2008)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배우자의 정서적이고 정보적인 지원은 성인의 가정생활만족도에 대해 직접효과가 있었으며, 가정생활만족도를 설명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이었다. 질병에 걸렸을 때 삶의 질도 주위 사람들의 정서적 지원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김의철, 홍천수, 이정권, 박영신, 2005). 그러므로 성인의 행복에 대한 후속

연구에서 정서적 지원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변인으로 포함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들을 검토하여, 이 연구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변인들을 추가하여 성별 행복형성에서의 특징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성인의 행복을 설명하는 독립변인으로 월평균 수입, 연령, 학력, 정서적 지원, 자기효능감, 직업 성취, 자녀 성공 변인만을 투입하여 중다회귀분석 하였다. 물론 남자 직장인 집단의  $R^2=70\%$ , 여자 직장인 집단의  $R^2=67\%$ , 전업주부 집단의  $R^2=52\%$ 로서, 높은 설명변량을 나타내었다. 총 설명변량이 높기는 하지만, 다른 변인들에 의해 설명되는 측면들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설명되지 않고 있는 변량들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는 타당도 있는 예측변인들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한덕웅(2005)은 한국문화에서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되는 사회심리 요인들을, 인구통계 변인들, 정서경험, 사회비교, 생활에서 경험한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사고경험, 한국문화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들과 사회행동의 개인별 함치도의 측면에서 분석한 바 있다. 또한 김명소, 성은현과 김혜원(1999)은 한국 기혼여성들의 성격 특성이 주관적 삶의 질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정서적 안정성, 지적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이 주관적 삶의 질의 세 요인에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힌 바 있다. 성격 변인들이 주관적 안녕감과 어떠한 관련을 갖는지(서경현, 김정호, 유제민, 2008) 등, 한국 성인의 행복을 보다 타당하게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예언변인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여섯째, 부부관계의 발달적 변화과정에 대

한 연구도 매우 흥미로운 연구주제로 떠오른다. 성인기의 사랑과 친밀감(유가호, 2008)이나, 성공적인 노화(정옥분, 2008)를 위해 인간발달의 각 단계에서 긍정 에너지가 중요하며, 이러한 맥락 속에서 부부관계의 발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결혼상태별 행복의 차이를 분석하였을 때, 성인 남자들은 미혼이나 결혼이나 사별집단간에 행복지각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성인 여자들은 집단간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사별집단이 미혼집단보다 행복하였다(표 1 참고). 즉 성인 남자와 달리 성인 여자들은 미혼일 때보다 남편과 사별해서 혼자 살 때가 더욱 행복하였다. 물론 성인 여자에서 결과의 유의도 수준이  $p < .05$  로서 매우 높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표집을 대상으로 결과를 재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 남자와 달리 성인 여자들은 남편과 사별해서 혼자 사는 집단이 미혼 집단보다 더욱 행복하다는 사실은, 부부관계의 형성 유지 쇠퇴 종료 등 시간흐름에 따른 관계 변화가 남편과 아내라는 입장에 따라 어떻게 지각이 되고 있는지를 분석해 볼 필요를 시사한다. 성인 여자들이 남편과 사별 이후에 행복함을 보여 주는 이 연구의 결과는, 생의 발달단계 속에서 부부관계에 대해 남편과 아내가 각각 다른 지각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혜성(1998)이 한국 여성의 심리적 특성을 각 연령대별로 분석하였을 때, 20대는 적극적, 충동적, 이기적, 감각적, 희망적인 특성이 부각되었고, 40대는 무기력한, 자상한, 가족중심적인, 뻔뻔한, 과시적인 특성이 나타났으며, 60대에는 위축적, 권위주의적, 자애로운 특성이 나타난 바 있다. 연령대별로 여성의 심리적 특성에 차이가 있다면, 이러한 여성들이 부부

관계에 대한 지각이나 또는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다.

성인들의 성공적인 노화과정에서 성공적인 인간관계는 중요하다. 그런데 관계는 고정된 구조물과 같은 것이 아니고 변화하는 유동성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관계를 구성하는 개체 각각이 새로운 자극과 경험을 통해 변화해 나갈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개인들이 연결되고 있는 관계도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진화를 거듭해 나간다. 그러한 변화의 방향이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다. 그것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느냐는 관계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성실한 노력 여부에 의한 것이며, 세상에 공짜로 주어지는 결과는 없을 것이다. 상대에 대한 진정한 존중과 배려가 없다면 그 관계는 매우 아이러니하게도 남편과의 사별을 더 행복해하는 한국 성인 여성들의 마음처럼 서로 지각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과거의 구태의연한 관계 내에서의 대상 지각이 아니라, 변화하는 개인과 변화하는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그에 부응하는 끊임없는 겸손한 노력만이, 생명체와 같이 진화하는 관계에 생명의 에너지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 여성의 행복에 대한 접근에 있어 한국인 부모자녀관계의 토착심리에 대한 이해의 틀(박영신, 김의철, 2004)이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 연구에서 전업주부들의 경우에 행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자녀의 성공이 부각되었다는 사실은, 사람들의 행복 인식에서도 한국인 모자관계의 토착심리가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는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행복의 일반 원리보다도 한국인

의 심리적 독특성을 고려하면서 한국 사람들의 행복을 이해하려는 시도들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행복의 정의와 원인에 문화차이가 있음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지적되어 왔다(Diener & Suh, 2000). 또한 한국 사람들의 토착적인 행복심리에 대한 이해를 위한 신명나는 삶과 같이 다양한 주제들이 탐구된 바 있다(한민, 한성열, 2008). 토착심리의 철학과 방법 및 여러 분야에서의 응용과 관련된 학문적 논의가 이제는 세계 학문 분야에서 토대를 굳건히 해 나가고 있다(Kim, Yang & Hwang, 2006). 김명소와 김혜원(2000)이 한국의 기혼여성들의 안녕감 구조에 대한 연구를 한 결과, 서구와 달리 긍정적 대인관계가 중요한 하위 변인으로 부각된 바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인 또는 한국 여성들의 행복을 구성하는 요인들에 문화특수적인 요소들이 포함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앞으로 한국 여성들의 행복에 대한 탐구의 과정에서 한국인 토착심리를 규명하는 이해의 틀을 기반으로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 참고문헌

강혜련, 최서연 (2001). 기혼여성 직장-가정 갈등의 예측변수와 결과변수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6(1), 23~42.

권석만 (2008). 긍정심리학: 행복의 과학적 탐구. 서울: 학지사.

김명소, 김혜원 (2000). 우리나라 기혼여성들의 심리적 안녕감의 구조분석 및 주관적 안녕감과 관계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5(1), 27~41.

김명소, 성은현, 김혜원 (1999). 한국 기혼여성

들의 성격 특성과 주관적 삶의 질.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4(1), 41~55.

김은정, 오경자, 하은혜 (1999). 기혼여성의 우울증상에 대한 취약성: 스트레스 경험 및 대처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4(1), 1~14.

김의철, 박영신 (1999). 한국 청소년의 심리, 행동특성의 형성: 가정, 학교, 친구, 사회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심리학회, 교육심리연구, 13(1), 99~142.

김의철, 박영신 (2004). 청소년과 성인의 삶의 질 인식에 대한 토착심리 분석: 가정, 학교, 직장, 여가생활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4), 973~1002.

김의철, 박영신 (2006). 한국인의 자기 인식에 나타난 토착문화심리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2(4), 1-36.

김의철, 홍천수, 이정권, 박영신 (2005). 건강과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분석: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원 및 질병관리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2), 143~181.

김혜원, 김명소 (1998). 취업이 기혼여성에게 주는 심리적 영향: 성역할 태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3(1), 35~50.

박수정 (2009). 스포츠와 행복 추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5(1), 특집호, 241~250.

박영신, 김의철 (2002). 한국 사회의 교육적 성취: 현상과 심리적 기반. 한국교육심리학회, 교육심리연구, 16(4), 325-351.

박영신, 김의철 (2004). 한국인의 부모자녀관계: 자기개념과 가족역할 인식의 토착심리 탐구. 문화심리학총서 제 5권. 서울: 교육과학사.

박영신, 김의철 (2008). 배우자의 사회적 지원,

- 자녀에 대한 신뢰 및 자기효능감이 성인의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4(4), 71~101.
- 박영신, 김의철 (2009). 심리적, 관계적, 경제적 자원: 한국인의 행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5(1), 특집호, 95~132.
- 박영신, 김의철, 박은실 (2009). 사회적 지원과 교사효능감이 직무성취도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초등교사에 대한 단기 종단 분석. *한국교육심리학회, 교육심리연구*, 23(3), 413~442.
- 서경현, 김정호, 유제민 (2008). 성격과 주관적 웰빙 간의 관계: Big 5 성격요인과 BAS/BIS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5(1), 특집호, 169~186.
- 서은국 (2005). 왜 한국인의 행복감은 낮은가? 2005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사회문제심리분과 심포지엄 자료집.
- 조옥경 (2009). 요가심리학과 긍정적 정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5(1), 특집호, 227~239.
- 유가호 (2008). 성인기의 사랑과 친밀감. 2008 한국인간발달학회 학술심포지엄 자료집.
- 이명신, 이훈구 (1997). 주관적 삶의 질에 나타난 성차의 원인.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1), 89~101.
- 이종구, 이해경, 김명소 (2003). 한국 여성의 자아개념의 요인구조와 성차.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8(2), 1~19.
- 이혜성 (1998). 한국 여성의 심리적 특성 척도 개발을 위한 예비연구 1.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3(1), 103~116.
- 정옥분 (2008). 성공적인 노화. 2008 한국인간 발달학회 학술심포지엄 자료집.
- 차영란, 김기범, 전경숙 (2007). 중년여성의 일상생활 속의 사회적 역할과 삶의 만족과의 관계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2(3), 299~313.
- 한덕웅 (2005). 한국문화에서 주관안녕과 관련된 사회심리 요인들. 2005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사회문제심리분과 심포지엄 자료집.
- 한덕웅, 김금미 (2004). 성별에 따른 한국문화 인식과 공동사회 가치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9(1), 23~42.
- 한민, 한성열 (2008). 신명나는 삶: 한국 사람들의 행복에 대한 이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5(1), 특집호, 81~94.
- Bandura, A. (1995). Manual for the construction of self-efficacy scales. Unpublished manuscript, Dept. of Psychology, Stanford University, USA.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Freeman.
- Diener, E. & Suh, E. M. (Eds.). (2000). *Culture and subjective well-being*. Cambridge: The MIT Press.
- House, J. S., Landis, K. R., & Umberson, D. (1988). Social relationships and health. *Science*, 241, 540~545.
- Kim, U., & Park, Y. S. (2006). Factors influencing academic achievement in relational cultures: The role of self, relational and collective efficacy. In F. Pajares & T. Urdan (Eds.), *Self-efficacy beliefs of adolescents*, 267~285. Greenwich, CT: Information Age Publishing.
- Kim, U., Yang, K. S., & Hwang, K. K. (2006). *Indigenous and cultural psychology: Understanding people in context*. New York: Springer.

- Lucas, R. E., & Gohm, C. L. (2000). Age and sex differences in subjective well-being across cultures. In E. Diener, & E. M. Suh (Eds.), *Culture and subjective well-being*. 291~317. Cambridge: The MIT Press.
- Nolen-Hoeksema, S., & Rusting, C. L. (1999). Gender differences in well-being. In D. Kahneman, E. Diener, & N. Schwarz, (Eds.), *Well-being: The foundations of hedonic psychology*. 330~352.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1 차원고접수 : 2009. 8. 13.  
심사통과접수 : 2009. 8. 28.  
최종원고접수 : 2009. 9. 26.

## Factor influencing happiness among Korean adults: The influence of occupational achievement, success of children, emotional support and self-efficacy

**Youngshin Park**

Inha University  
Dept. of Education

**Uichol Kim**

Inha University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factors that influence happiness among Korean adults. To this end, we have examined the influence of socio-economic status, monthly income, position in a company, type of occupation, occupational achievement, marital status, single or double income family, number of children, and the success of children. Second, we have examined the influence of gender in the experience of happiness, especially the influence of occupational success and success of children among employed men and women and housewives. A total of 313 adults (men=133, women=180) living in three different neighborhood differing in socio-economic status completed a survey questionnaire that includes Bandura's (1995) resiliency of efficacy, emotional support and happiness scale developed by the present researchers and background information(Cronbach  $\alpha = .84 \sim .90$ ).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 -test and ANOVA analyses revealed that for both men and women, those with higher socio-economic status, monthly income, professional occupations, occupational achievement, and success of children were more likely to report higher levels of happiness. Although marital status of men did not influence their level of happiness, the widowers had the highest level of happiness for women. Second, in the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with happiness as the dependent variable and monthly income, age, education, emotional support, resiliency of efficacy, occupational success and success of children as predictors, emotional support was the most important predictor of happiness for men, followed by occupational success. For housewives, the success of their children, followed by monthly income were predictive of their happiness. For employed women, resiliency of efficacy was predictive of their happiness.

*Key words* : happiness, gender difference, occupational success, success of children, emotional support, self-efficacy, monthly income.